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아름다운 마지막과 새로운 기대로

1993년의 정리와 1994년의 새 계획

12월12일 제직·교구일꾼, 12월19일 교사·찬양대원 임명

한해가 가고 있다. 늘 이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해지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계속된다. 1993년도 두달 정도 남겨놓고 교회는 1994년도의 계획과 준비로 온 부서가 바쁘게 움직이게 된다. 특히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마무리를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에 이제부터 분명한 연말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확인하며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회적으로는 1993년의 결산 및 평가와 1994년도 계획과 준비를 위해 각 부서별로 연일 모여 준비에 여념이 없다. 계획과 준비일정은 크게 세 부문으로 첫째로 원로추대 및 장기근속자 포상, 둘째로 1994년도 사업계획, 셋째로 1994년도 교회일꾼 선정이다.

원로추대는 시무장로와 시무권사 중 70세 이상된 자를 추대하는 일이고 장기근속자는 각 직분별로 장기 근속하며 교회에 충성, 봉사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일이다. 이미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0월 정기당회(11월 7일)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1994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지난 10월 17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제출받아 기획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당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1994년도 교회일꾼 선정은 10월 정기당회(11월 7일)에서 위원장, 부장 및 교역자를 임명하고 산하 부서장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12월 5일 정기당회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한편 서리집사와 권찰은 이미 후보자를 각 교구에서 추천받아 검토하고 11월 17일(수) 신임 서리집사와 권찰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12월 12일에,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은 12월 19일 주일 예배시간에 임명하게 된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 부서 총회는 12월 19일(주일)에 교구위원회·찬양위원회·전도위원회 총회를, 12월 26일(주일)에는 교육위원회 총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총회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12월 26일(주일)에는 결산·예산 특별제직회를 한 후 내년 1월 2일(주일)에 결산·예산 공동의회를 열어 모든 연말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런 바쁜 일정 가운데 모든 책임 맡은 사람들은 금년의 마무리를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꾼 임명에서 착오

로 누락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각종 말은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후임자가 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1993년을 평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조그마한 모임들도 갖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좋은 끝맺음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11월, 12월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2일(화) 서리집사·권찰 1차 검토
5일(금) 서리집사·권찰 2차 검토
7일(주일) 10월 정기당회
12일(금) 제4차 세례식
14일(주일) 제4차 성찬식
14일(주일) 위원회 산하기관 인사회의
17일(수) 서리집사·권찰 후보교육
21일(주일) 위원회 산하기관 인사 마감
21일(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23일(화) 1994년도 교회일꾼 조정(서리집사·권찰)
24일(수) 서리집사·권찰 후보교육

26일(금) 1994년도 교회일꾼 조정(교사·찬양대원)

28일(주일) 위원장 협의회

28일(주일) 위원회 산하기관 인사조정, 대외구제

12월

5일(주일) 11월 정기당회
12일(주일) 제직·교구일꾼 임명
14일(화) 신 사업안 기획위 3차 검토
19일(주일) 교사·찬양대원 임명
19일(주일) 당회(예산·결산)
19일(주일) 총회(교구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25일(토) 성탄절
26일(주일) 총회(교육위원회)
26일(주일) 총회(안수집사회, 권사회)
26일(주일) 원로추대 및 장기근속자 포상
26일(주일) 12월 정기당회(1993년 결산 및 1994년 예산)
28일(화) ~ 94년 1월 1일 송구영신 특별성회, 불우이웃 위로잔치
94년 1월 2일(주일) 공동의회(1993년 결산 및 1994년 예산)

사랑의 빛 찾기 음악회
임마누엘 찬양대 출연
12월 4일, KBS홀에서

사랑의 빛 찾기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사랑의 빛 찾기 음악회에 우리 교회의 임마누엘 찬양대가 출연한다. 이는 사랑의 빛 찾기 운동본부가 개안수술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개안수술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4일(토)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교구별 새가족 환영회, 지난주일 2교구 시작으로

'93 예수사랑 큰잔치가 끝나고 결산자 심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구별로 새가족 환영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2교구가 지난 주일(10.31) 오후 2시 교구모임 시간에 100여명의 교회식구들이 참석하여 은혜롭게 진행하였다. 이 환영회는 교구장의 환영사와 교회의 소개, 새가족 인사와 환영, 축하 연주와 새가족부

소개, 그리고 새가족을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교구에서 마련한 다과와 선물 등 시종 감사와 은혜로운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

11월 12일(금)에 학습·세례식
11월 7일(주일)까지 신청하기를

금년들어 네번째의 성찬식이 다음 주일(11월 14일) I, II, III, IV부 예배시간에 거행된다.

또한 학습·세례식이 11월 12일(금)에 실시된다. 금년 들어 네 번째인 학습·세례식은 금년으로는 마지막인데 학습·세례·유아세례·입교 및 개종 받기

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11월 7일(주일)까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비교육 및 문답이 11월 1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엑스포 야외학습 경로대학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야외학습의 하나로 대전 엑스포를 다녀왔다. 하루종일 대기와 관람 등으로 고된 일정이었지만 회원들은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학생 167명, 교사 36명이 참석했다.

1.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 하시면서 세 번에 걸친 그의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아주 많은 무리들이 그를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온 성이 소동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소리가 온 성에 진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일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저주의 입술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국과 국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2.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첫째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정복자, 승리자로서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고 장군이 앞에 가고 뒤에 그의 부장들과 부하들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추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승리자요 정복자이지만 그는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세상을 먼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성전부터 정결케 하시면서 심판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난 후에 같은 날 예수님은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과연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물으시며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3.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와 그가 받은 영광

본문에 보면 불품없는 나귀가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마침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가 얻게 된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첫째는 찬송을 받았습니 다. 물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나귀에게 찬송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예수님을 대우하고 간다는 판 한 가지 하유 때문에 그도 함께 찬송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님 덕에 나팔을 부는 말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나귀는 찬송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나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본래 동물은 양이나 염소나 소처럼 제물로 사용되어질 것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못들어갑니다. 부정한 동물은 데굴다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다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품이 없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면,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문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나귀는 성전에 기록되는 귀한 축복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클린턴이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세계의 정치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잘것 없고 불품없는 이 나귀는 그의 자선에 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

님을 등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쓰임을 받기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불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행위록에 기록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에 기록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토록 기록되어 질 것입니다.



승리의 입성

(마 21:1-11)



신 성 종

<목사·당회장>

4. 나귀가 얻은 영광과 축복의 비결

첫째는, 때인 것에서 풀려야 합니다. 본문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예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대게로 끌고 오너라" 때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때인 것에서부터 풀려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매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술판에 매여 있고, 이해관계에 매여 있고, 잠정에 매여 있고, 원정에 매여 있고, 또 가정과 직장에도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때인 것에서부터 풀려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로 끌고 가자 예수님이 쓰임받습니다. 본문에 "대게로 끌고 오너라"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임받았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도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쓰인 것은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도 누가 그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에게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국장이 되기도 하며, 민장에게 쓰임을 받으면 맨에서 일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탄에게 쓰임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게 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투자를, 즉 헌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겹옷을 나귀 위에 얹을 때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당시의 옷은 계급장과 같습니다. 또 겹옷은 그들이 잠잘 때 담요처럼 밑에 깔기도 하고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겹옷을 나귀의 등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타시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젊음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안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타실 때에 비로소 나귀는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시지 않았다면 그 나귀는 별 볼일이 없습니다. 병에

매여서 발을 간다든지 아니면 등에 짐이나 실을 가지박에는 없습니다. 이 나귀는 토저히 이런 귀한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등에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등에 태운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나귀는 등에 태운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등에 악인이 탔느냐 선인이 탔느냐에 따라서 그의 방향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등에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방향이 바로 결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고야 맙니다. 여기에는 중립지역이 없고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마음속에 보실로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성 안에 들어오 사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그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은 우리의 바울도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만 부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직분만 맡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과 화해와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령주령 없이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나귀와 같이 보잘것 없고 쓸모없는 우리지만, 주님께 쓰임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언비어



이 세상에 유언비어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다. 일찍이 일로 전해지는 한테는 유언비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대형 사고로 인해 수많은 유언비어가 날뛰고 있다. 그 동안 옥지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일어났으니 이제는 땅 속에서 일어날 차례라는, 어느 점장이 그 말에 예민했다는, 하고, 이번 제1호: 침몰시킨 후에도 배의 선반, 이 길에 있는 것을 보겠다는 유언비어가 있었다. 본 사람이 있다는, 나, 본인이 직접 선회로 자수할 뜻을 밝혔다는, 하고, 선장이 죽은 시체가 되어 나동으로써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지만 이러한 유언비어가 사회에 끼치는 해독은 크다. 유언비어가 가장 많은 곳은 중권시절과 대: 안과 직장 등 사람이 많이 만나는 곳이다. 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해 무해하게 전달되는 것은 방법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사회가 안정되는 것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저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며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에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 ◆

주님의 당부를 지키기로 결심함

김 광 국

(목사, 제7교구 담당)

1.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성찬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육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영을 위한 성찬입니다. 인간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찬입니다. 세상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성찬이기 때문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하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이 성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고전 11:28) 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이 예식에 참여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간의 관계에 흠이 없었는지 먼저 살피고 성찬할 때 전후반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는데 어찌 합당치 못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겟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마 26장)을 잊지 맙시다. 또한 은혜로운 성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고난 장들을 애독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먼저 동참하면 더욱 의미있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2.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성찬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란 기억하는 것, 말하자면 과거의 사실들을 현재적이면서 실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무관된 관계로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하므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9)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주님이 어찌 나와 무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자라면 큰 아픔과 회개의 눈물로 귀한 성찬에 참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전 1:24)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참여하여야 합니다. 곧 떡은 주님의 살이요, 잔은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몸이요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피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심정으로 참여하여야 되겠습니다.

3. 새생명의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제21장에 성찬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주님은 그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악마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셨으며, 현재는 그의 살로써 우리를 먹여 주시고 그의 피로써 우리를 마시게 하시며, 그것을 참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받아 들일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

성찬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는 예식입니다. 먹음이란 경험이며 생명운동입니다. 먹음을 통하여 영적인 새생명을 얻습니다. 물질적인 음식도 우리 몸을 새롭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며, 살아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물며 영생에 이르는 양식인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영혼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며 강건하게 해주고 살아 있도록 보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친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3)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4. 예수 안에서 하나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을 가르칩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인체안에 들어가면 존재하지 않고 회생되듯이 우리는 이 거룩한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회생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회생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킨 회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였던 삶의 자세를 전환시켜 남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께 용서 받는

귀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저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며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에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도 참 이웃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성찬식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잔과 떡을 먹습니다. 성찬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한 형제인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성찬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5. 주님의 당부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였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X형틀에서 죽어가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불려가자고 하였으므로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전하였으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으며, 바돌로매는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매맞아 쓰러지고 극기야는 칼로 살갗을 벗기우며 십자가 위에 머리를 떨구며 죽었으며 그 시신은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고 결국은 톱에 켜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였던 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한가지 사실 앞에 감사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담대히 자신의 몸을 버려 주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재림의 날까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심을 들읍시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출가한 언니가 있는데 불교신자이다. 형부는 공무원이시고 2남 1녀를 둔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93년 1월 25일 혈압으로 형부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다. 오른 쪽이 모두 마비된 채 병원에 누워계신 형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도를 드리라는 간곡한 내 부탁에 형부는 메리를 꼬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날부터 하나님께 향한 나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시작되었고 두번째 병문안 갈 때는 위기 쉬운 간증책과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두개 가지고 가서 꼭 읽고 들어보라고 당부했다. 50일 후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을 수 있게 된 형부는 퇴원하였다. 가끔 전해오는 점점 회복되어 간다는 반가운 소식에 반박해 하듯이 형부를 위한 내 기도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감을 느끼게 되었다. 잘난 1부 예림 수련회(7월 17일)를 마친 주일(7월 18일)이었다. 집에 와 보니 형부의 병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사탄과의 싸움

이 정 희

(장년1부)

세가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더라도 내게 전해준 책과 테이프를 들어보았느냐고 하였더니 “그저 들을 새가 없었어!” 언니는 열심히 믿어라!는 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가 폭발(?)했다. 언니와 심한 말다툼 끝에 언니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있는데 장년1부를 맡아서 지도하시는 목사님의 강의 내용이 떠올랐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과 영의 싸움이다”라는 것과 또한 ‘현실은 항상 어려움이 함께

한다’는 말씀에 생각났다. 제도 목사님께서도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배를 피할 생각으로 후산을 먼저 피고 자동차 문을 닫고 보내 자동차 시동은 끄지 않았고 열쇠도 차안에 있었으므로(집에는 모두 외출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자동차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는데 화가 슬며시 내려는 순간 ‘정도를 중에 장년1부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가서 산경질 나는 일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다 쏟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최소한 강의를 한 나는 쏟아 버려야지’ 하고 목사님 자신을 다스렸

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은혜 충만히 받은 것을 그 순간에 다 쏟아 버린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형부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내 기도 부족이 있음을 깨닫게 된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믿음이 더하는 것을 느꼈다. 형부는 8월 27일 퇴원하셨다.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영적전쟁의 전장터이다. 우리가 매일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크고 작은 부분에서 패하게 된다. 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과 이미 세상을 이겨낸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

군전도회 사업 활발히 전개

위문품전달 및 진중세례식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는 금년도에 활발히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군목수련회 등의 교육사업, 군목지원 사업, 장병위문사업 등을 실시해 왔는데 지난 10월에도 서부전선 지역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또한 판문점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등 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과 27일에는 육군 21사단과 22사단을 방문 진중세례식을 가저 600여명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다. 군전도회는 30여명의 회원에

서 출발 현재 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군전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난지도 주민 돕기로

고등부와 2교구에서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와 제2교구에서 난지도 주민들을 돕기로하고 성금과 구호물품을 모으고 있다. 얼마전 난지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이 모두 불타고, 주민들은 겨울을 앞두고 생계가 막연한 실정이다. 이에 고등부에서 먼저 성금과 물품을 1차로 모아서 전달할 예정이며, 2교구에서 이를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접수처:갈릴리홀 입구, 주일오전)

충현기도원 지하예배실 온돌로 난방

충현기도원은 본당지하 예배실을 마루에서 온돌로 바꾸었다. 매년 동절기에 본당지하의 난방방법이 문제되었는데 온돌로 할 경우 여러모로 편리할 것을 기대하며 바꾸었다. 따라서 동절기 본당지하 집회실 이용이 한층 편리하리라 생각된다.

<주간충현> 색깔 오늘부터 변경

<주간충현>은 검정색과 별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사용해온 초록색을 동절기를 맞아 갈색으로 바꾸게 됐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 신성종 목사님 :
11월8일(월) 기독교 사회선교협의회 논찬,
12일(금) 한국비디오 성서통신대학 제4회 수료예배 참석,
서울지구 목회자 초청간담회 참석
2. 한국교회 성도들이 먼저 탐심과 불의를 버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며 주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4. 취업을 준비하며 입시를 앞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소서.
5. 학습과 세례식에 참여하는 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제직원 사진촬영에 적극 참여키를

지정된 주일에 찍지 못한 사람 수, 목, 금요일 중에 촬영

제직원께서는 교구별로 지정된 주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으시고 주일에 못 찍은 분은 평일 편리한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날짜에 못 찍으신 분들도 평일에 오셔서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 촬영교구 :

11월 7일 제17교구, 제18교구
11월 14일 제19교구, 제20교구
11월 21일 제21교구, 제22교구

· 촬영시간 :

주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목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대상 : 원로장로, 장로, 교역자, 원로집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권사, 남여서리집사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리남 / 김 창 수 목사



이 나라는 계절이 없이 늘 여름이지만 '바칸티'라고 부르는 8-9월 중의 휴가철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인 지난 9월 6-9일에 나홀간 현지어린이를 위한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할 헬루야! 주의 몸된 충현교회와 모든 선교지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온 성도들과 더불어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겠지요? 선교위원회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동역자들도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이곳 수리남선교지에서 참으로 귀한 사역과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해 동안 교회 선교위원회를 지도하면서 선교지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보았습니

다. 먼저 선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점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봅니다. 보내주시는 주간충현을 통해 여러 행사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며 함께 감사드리고 기도할 제목을 받으면서 수리남선교지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안식일 선교사님의 사역의 즐거움을 따라 한인교와 현지인들을 교회중심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사역에 있어서는 아직 영어를 화란어로 통역하고 있는데 통역사역이란 점이 좀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경우 영어는 기본적인 생활영어를

좀 할뿐 교사 등 지식인들 외에는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30%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영어로 하는 사역에는 꼭 통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한 현지인 부부의 통역으로 저의 사역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계절이 없이 늘 여름이지만 '바칸티'라고 부르는 8-9월 중의 휴가철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인 지난 9월 6-9일에 나홀간 현지어린이를 위한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하는 주제로 현지인 협력자(A. CHUNG, R.SANTANI, M.SORDJO)의 도움을 받아 한인교회에서 가졌던 이 성경학교에 하루 평균 60여명의 현지인 어린이가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 몇 가정의 현지인 장년 세신자들이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습니다. 새신자인 Vreden, Joanij, Daniella Sumter, Consuela, Nurmoha, Franker Meye, Diana Astrid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10월 20일에는 한인교회에서 20Km 떨어진 장애인보육원으로 한인교회 여전도회원 6명과 함께 찾아가서 각 가정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식품들, 의류 등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찬송과 기도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나라 식민주 종주국인 화란에서 시설과 생활물자를 잘 공급해주었으나, 20년전에 독립을 했고 특히 최근 이 나라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어 식품미션이 어려운 가운데 한인교회가 보육원을 방문하여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니다.

이 나라의 최근상황을 보고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 것 같습니다. 안 선교사님의 사역중에 이미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 이 나라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보다는 빵을 주식으로 하는 이 나라에서 빵공장이 경영악화로 몇번 문을 닫았는가 하면, 수도권전역에 걸쳐 한달 이상이나 주유소가 문을 닫아 심한 기름난을 겪어 왔습니다. 많은 생필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고 국제전화료는 16배, 어제 신문에는 병원진료비가 10배나 오른다는 1면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이 곤란을 겪게되자 지난 10월 1일과 4일에는 이 나라의 주요 2개 야당이 국민들에게 현 대통령이 퇴진하도록 반정부대모를 유도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달란드로부터 식민지원조가 10년 이상 끊기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정치지도자들의 부패가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리남 선교부와 한인교회에서는 이 나라의 이런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현의 선교본부와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귀한 한 해의 결실을 허락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주안에서, 살롬!

